

칠레 하원, 광업 세제 개정안 승인...정부 세수 확대 기대

칠레

Reuters, Mining.com, Latin Lawyer

2023/05/19



□ 칠레 하원이 광업 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음.

- 칠레 하원이 광업 세법 개정안을 가결했음. 해당 법안은 대형 광업 기업의 세수 부담을 늘리고 정부의 광업세 수입을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음.
- 칠레 현지 시각으로 2023년 5월 17일 진행된 표결에 참여한 125명의 하원 의원 가운데 101명이 법안에 찬성했으며 반대는 24표에 불과했음.
- 이러한 찬성 절대 우위의 결과에 대해 마리오 마르셀(Mario Marcel) 재무부(Ministerio de Hacienda) 장관은 환영의 뜻을 표명했음.
- 상원에 이어 하원까지 통과한 광업 세법 개정안은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겨 놓고 있음.
- 가브리엘 보리치(Gabriel Borci) 대통령이 광업 세법 개정안 지지 의사를 보여 왔기에,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함.

□ 새로운 광업 세법이 하원을 통과하면서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되었고, 이에 광업계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음.

- 칠레 경제에서 광업이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에 광업 세법에 대한 논의가 길어지자 업계는 정책 리스크를 언급하며 불안감을 표명했음.
- 하지만 이번엔 사실상 새 광업 세법 시행이 확실시되면서, 업계도 분명한 법률적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수 있게 되었음.
- 광업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칠레 광물생산자 연합(SONAMI, Sociedad Nacional de Minería de Chile)은 그동안 법률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생산 활동에 차질이 있었지만, 불확실성이 해소되었기에 앞으로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되었다고 밝힘.

□ 칠레 정부는 광업 부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정책적으로 산업을 육성할 계획임.

- 칠레 정부는 광업 세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한편, 최근 리튬 국유화를 선언하는 등 광업 부문을 정책적으로 이용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.
- 글로벌 핵심 구리 생산국인 칠레는 리튬 산업까지 육성해 향후 칠레의 경제 성장과 정부 재정을 강화하기 위한 원동력으로 삼겠다는 방침이며, 이에 관련 법 개정 등 필요한 후속 조치를 앞으로도 이어갈 계획임.